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87)(11/11/2021)

제 3 권 내적 위로

제 3 장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 기울여야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주의하지 않음, 1-3 절

요 6:63 -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시 94:12-13 - 12.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13.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히 1:1 -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1. <그리스도> 아들이,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은 이 세상의 철학자들과 현자들의 지식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향기로우니라. 내 말은 “영”이고 “생명”이어서(요 6:63), 사람의 지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헛된 자기만족을 위하여 듣지 말고, 아무 말 없이 잠잠히 들어야 하며, 모든 겸손함과 큰 사랑으로 받아야 한다.

2. <제자> 오, 주여, 주께 가르침을 받고, 주의 법으로부터 교훈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환난 날에 그 고난이 감해지게 될 것이고(시 94:12-13), 땅에서 버림받아 고적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3. <그리스도> 나는 옛적부터 선지자들을 가르쳤고(히 1:1),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모든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귀를 막고 내 음성을 듣지 않고 완악해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보다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세상은 보잘것없고 덧없는 것들을 약속할 뿐인 데도, 사람들은 온 마음을 다 바쳐서 열렬히 세상을 사모하고 따른다. 반면에, 나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들을 약속하는 데도, 사람들은 시큰둥해 한다. 모든 일에서 세상과 그 군왕들을 섬길 때처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나를 섬기고 순종하는 사람이 과연 있거나 한 것이냐? 옛적에 바다가 시돈을 향하여,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이다”(사 23:4)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거든, 내 말을 들어 보아라. 사람들은 하찮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리 먼 길도 마다하지 않지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땅에서 단 한 발자국도 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하찮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몇 푼 안 되는 돈을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여 법정에서 불쌍사나운 다툼을 벌이고, 헛된 일들과 하찮은 상을 위해서 밤낮으로 녹초가 되도록 일한다.

말씀과 해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철학과 사상 혹은 우리의 인간적인 궁금증과 각종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어떤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된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시 119:105)이 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관여하고 이끌어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신적 욕구와 세속적 관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 영적 세계에 관한 메시지,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우리의 구원과 영혼의 잘됨에 초점을 둔다. **딤후 3:15 -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주님은 영생의 말씀을 주신다. 요 6:68 -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한다. **딤후 3:16-17 -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울러 하나님은 말씀은 하나님의 크신 뜻과 비전을 선포한다.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다. 렘 1:5 -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겠다고 하셨다. 렘 1:9-10 - 9.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10.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알리시며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신다. 고후 1:4 -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나 들어도 건성으로 듣고 집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렘 22:21 -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에스겔도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겔 3:26 -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구약성경에 언급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며,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 딤후 4:3-4 - 3.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할 것을 말씀하신다. 롬 12:2 -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나는 지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가? 나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온전히 뿌리내리기를 애쓰며 기도하는가? 나는 주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어 드리고 있는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하시고, 나 자신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뜻을 담은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이 땅의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주변의 가족, 친구, 이웃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3.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어린 시절부터 주님을 깊이 만나며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성숙해 나가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